

‘영농형 태양광 벼’ 두토끼 잡았다

벼 수확하고 태양광 전력 생산
나주 영농형 태양광 사업 첫 결실
수익금 주민 환원 수혜도
식량 안보·탄소중립 실천 ‘주목’



운병태 나주시장이 지난 25일 나주시 남평읍 남석리 하남마을에 영농형 태양광으로 재배한 벼를 수확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농지에서 벼를 재배·수확하고 태양광 전력도 생산할 수 있는 나주지역 첫 번째 ‘영농형 태양광’ 사업이 첫 수확 결실을 이뤘다. 나주시는 지난 25일 남평읍 남석리 하남마을에 구축한 제1호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 일원에서 태양광 설비 준공 기념식과 벼 수확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영농형 태양광은 하부 농지에서 벼 등 농작물을 생산하고 상부에서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얻는 방식이다. 농작물과 에너지 생산을 병행한다는 점에서 식량안보 차원의 농지보전 가치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영농형 태양광 시스템을 설치할 경우 농사에 실패할 수 있다는 당초 우려와 달리 태양광 모듈로 인해 오히려 병해를 막아 수확물 증가로 이어진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이날 벼를 수확한 결과 관행농법 재배 벼에 비해 쓰러짐도 없고 수확량도 97%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확을 진행한 윤성수 씨는 “폭염, 폭우, 태풍, 흑한과 같은 기후에서 발전시설이 농작물을 보호

막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태양광을 설치했을 때 오히려 생육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남석리 영농형 태양광 사업은 한국남동발전에서 출연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으로 관리되며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설비 시공과 운영 역할을 수행한다. 태양광 설비는 남평읍 남석리 하남마을에 각각 남석1호 발전소, 남석 2호 발전소를 설치해 지난 10월 7일 최종 준공(사업개시) 완료했으며 총 설비용량은 191.76kW, 예상발전량은 연간 25만

1972kWh다. 사업을 통해 나오는 수익금은 설비 유지비 등 운영비를 제외하고 전액 토지주의 임대료와 주민에게 환원돼 연간 2400만 원이 마을의 고정수입이 될 예정이다. 이는 마을의 발전기금으로 주민 모두 수혜를 누릴 수 있는 복지사업 등에 활용된다. 벼 수확현장을 찾은 운병태 나주시장은 “나주의 강점인 에너지 분야 산·학·연 집적화된 인프라를 통해 세계적인 에너지 신산업 중심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함평국향대전, 테마 식물관도 인기 만점

선인장 열매인 용과 꽃피워 이채
백년초·천사의 나팔·다육식물 전시
자연생태관 나비 군무 등 볼거리



천사의 나팔



물칸나



수련꽃

2024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열리는 함평군 엑스포공원의 식물관과 생태관의 다양한 꽃들이 관람객으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국향대전은 다양한 국화조화물과 국화 분재 뿐만 아니라 테마별 식물전시관도 또 다른 볼거리로 관람객의 시선을 끌고 있다. 다육식물관은 선인장의 열매인 용과(龍果)가 꽃을 피워 붉은 빛깔의 열매를 선보이고 있으며, 백년초와 천사의 나팔 등 다양한 선인장, 다육식물이 전시돼 있다. 자연생태관에는 나비가 국화꽃밭에서 날아다니는 장면을 연출해, 관람객이 나비의 군무를 카메라에 담느라 분주하다. 친환경농업관에서는 바나나, 파인애플 등 아열대 작물의 열매를 직접 볼 수 있고, 주말에는 바나나 수확 체험도 진행해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수생식물관은 다양한 수생식물의 줄기와 꽃들로 정갈한 느낌을 연출하고, 연못에는 향수 재료로 사용하는 수련꽃이 피어 은은한 향기를 내뿜고 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국향대전에서 소중한 이들과 힐링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란다”며 “다가오는 겨울 빛축제에서도 식물 전시관과 어울리는 다양한 빛 연출로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병영천 기후대응댐, 신규 댐 건설 후보 확정

강진군은 최근 환경부가 발표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 신규 댐 건설 후보지 결정안에 ‘병영천 기후대응댐’이 포함됐다고 28일 밝혔다. 기존 ‘홀골제’는 하천기본계획 대비 홍수량이 26% 증가해 홍수조절을 위한 댐 건설이 시급하고 낮은 안전 등급과 하천유수 공급 기능이 부재해 개선이 절실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강진군은 2017년부터 8년 간의 노력을 거쳐 국토부 및 환경부와 적극 협의한 결과 지난 7월 환경부에서 발표한 후보지

(안)에 포함됐다.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와 함께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절차를 마치고 병영천에서 댐을 건설하기 위한 실시설계를 시행할 예정이다. 강진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 후보지 선정으로 탐진강 수계의 상류인 금강천과 병영천의 수질개선 및 홍수조절 여건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말라가는 하천의 생태적 가치를 높이고 주민의 생활 여건도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장성군 ‘인구 견인차’ 광주연구개발특구 조성 순항

특구 첨단3지구 개발 사업 설명회
장성군 행정구역 70% 점유
9500여명 유입 시 5만명 선 회복



최근 광주이노비즈센터 다목적강당에서 광주시도시공사 주관으로 ‘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 사업설명회가 열렸다.

장성군의 인구를 늘려 줄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조성 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이 사업은 사업대상지의 절반이 넘는 70%가 장성군 행정구역이라 점에서 인구 유입 기대감이 높다. 실제 특구 내 예상 정주 인구 1만8000여 명 중 9500여명이 유입되면 9월 현재 4만3300여명 수준인 장성군 인구는 5만2000명대로 늘어날 전망이다. 장성군에 따르면 최근 광주이노비즈센터 다목적강당에서 광주시도시공사 주관으로 ‘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 사업설명회가 열렸다. 기업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첨단3지구 분양’, ‘투자유치 관련 설명’ 등이 이어졌다. 장성군은 중소기업 특별지원,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시책을 소개해 호응을 얻었다. 연구개발특구 첨단 3지구는 362만8568㎡ 면적

의 대규모 단지로 연구·산업의 거점으로 조성되고 있다. 장성군 진원·남면과 광주 비아동 일원에 인공지능(AI), 첨단의료 등 미래지향적 연구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남면 삼대리 일원에 설립하는 국립심뇌혈관연구소와 상승효과가 기대된다.

2022년 12월 착공해 10월 현재 조성 공정률은 15%이며 2026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특구 내에는 근무 인력 4만5000명과 정주 인구 1만8000명이 거주하게 된다. 주거시설 공급 규모는 공동주택 7440가구, 단독주택 338가구를 신축할 예정이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장흥 사자산에 ‘산림복지 무장애나눔길’

장흥군이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주관한 ‘산림복지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복권기금 12억 3000만원을 확보했다. 이번 공모사업은 복권수익금으로 장애인, 노인, 영유아, 저소득층 등 신체·경제·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장흥군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24억 6000만원을 들여 무장애나눔길을 조성한다.

사업 대상지는 안양면 기산리 사자산 일원의 장흥통합의료병원에서부터 장흥통합의학컨벤션센터까지 약 3km 구간이다. 군은 신체적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무장애 숲길 산책로, 산림체험프로그램을 위한 쉼터, 편의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무장애나눔길이 완성되면 산림복지의 사각에 있는 취약계층이 제약없이 이용할 수 있는 녹색인프라가 구축될 전망이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재부부장 kykim@kwangju.co.kr>

환우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가족의 마음으로 함께하는 병원 부모님을 모셔도 좋은 “동행요양병원”이 되겠습니다.

재활치료실 운영
중풍재활 / 인지기능수술후 재활

요양병동 운영
일반요양 / 전담간병인실운영 (24시간 간병인 상주)

한의 집중치료
침·뜸·부항·약침·물리요법 등의 치료실 운영

의학, 한의학 협진

중추신경계 재활치료 | 수술 후 재활치료 | 근골격계 통증치료

면회공간
환우분의 만남의 장소가 병원1층에서 면회와 운동 카페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신체프로그램, 인지프로그램, 작업프로그램, 사회적응프로그램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원내 생활공유
환우분의 근황 및 일상을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동행요양병원은 “환자의 안전”과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입니다.
| 인명기간 | 2020.10.19 - 2024.10.18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26 | 동행요양병원 | 062) 720-2000